

P#1

도진 : 결혼..?

여자 : ..응 안그래도 청첩장 보내려고 했어.

도진 : .....아..(살짝 웃으며) 진짜?

도진은 머리를 쓸어 넘긴다.

여자 : 넌 만나는 사람 없어?

도진 : (웃으며)바쁘데 무슨.

여자 : 좋은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도진 : ...

여자 : 넌 좋은 애니까.

도진 : .....

서로 한동안 말이 없다.

여자 : 나중에 보자.

도진 : ...응 그때 갈게

전화를 끊고선, 다른방향으로 시선을 향하는 도진.

잠시동안 생각하다가 욕을 내뱉는다.

도진은 : 씨발.

*[STRAYS]*

S#1

<18년 5월 11일>

달력에 무언가를 적으려는 도진.

오늘 날짜를 보더니 멈칫하는 도진은 계속해서 날짜를 증명거린다.

그리고선 달력을 뒤로 넘겨 2년전 달력을 보니

체크되어 있는 여자의 결혼날짜.

도진은 멍하니 보더니 자신의 볼펜으로 끄적끄적 날짜를 지워버린다.

## S#2

차를 타고 가는 도진. 멍때리며 운전하는 도진.  
전화를 받는 도진.

도진 : 응. 가고있어.  
그래 있다봐.

전화를 끊는 도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운전한다.

## S#3

차를 세우는 도진.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잡고선 가만히 있다.  
생각에 빠진 도진.  
결국 머리에 핸들을 갖다 댄다.  
손가락을 여러번 움직이는 도진.  
그리고선 결국 차문을 열고 나간다.

## S#4

누워있는 도진과 지은.  
지은, 도진의 품속에 안겨있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도진.  
어둠속에서 도진의 눈동자만 빛난다.  
그때 불에 입맞춤을 하는 지은.

지은 : 오늘 하자.

지은를 쳐다보는 도진.  
지은도 도진을 한번 쳐다보고 미소지으면서 불에 한번 더 입맞춤을 한다.

지은 : 오빠 좋은 사람이야. 항상 믿어.

도진도 지그시 쳐다보다 키스를 한다.

## S#5

밝은 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여자의 형태  
도진쪽을 보면서 웃어보인다.  
빛이 번지며 빠른속도로 지나가는 전깃줄들과  
여자의 눈동자가 보인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섬뜩하게.

## S#6

잠에서 깬 도진.  
자신의 옆을 보는 도진.  
혼자 있는 도진.

## S#7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는 도진의 뒷모습  
거친 숨소리와 이어폰 너머 시끄러운 음악소리만 들린다.

## S#8

세수하며 숨을고르는 도진.  
얼굴에서 물이 똑똑 떨어진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도진은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선 전화를 바로 받는다.

도진 : 여보세요.

한참 말이 없다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

여자 : 도진이 맞아..?

말없는 도진.

여자 : 잘지냈니?

여전히 도진의 얼굴에선 마르지 않은 물이 떨어지고 있다.  
멀리 보이는 도진의 모습.

## S#9

경적을 크게 울리며 걸어가고있는 도진의 옆을 지나가는 차  
매우 불쾌하다는 표정의 도진. 지나가는 차를 뒤돌아 본다.  
뒤돌아보면서 술을 들이키는 도진.  
흘러내리는 술도 인지못한채 별걱별걱 마시며 계속 걸어간다.

### *Montage*

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여자.  
웃는 모습의 여자  
빠른속도로 지나가는 전기줄.  
그리고 속삭임.

'넌 좋은 애잖아'

## S#8-1

여자 : 이혼할까봐.

도진은 가만히 여자의 말을 듣는다.

여자 : 술마시고싶다 도진아..

도진은 얼굴을 한번 쓸어 내린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뱉는다.  
그리고 들리지 않게 욕한다.

'씨발년'

## S#10

차안에서 반쯤 낮이 나간상태로 창밖을 계속 주시하는 도진.  
그리고 핸들에 머리를 박는다.  
가만히 있다가 두세번 세계 박는다.  
그리고 눈을 감은채로 고개를 쳐들어 시트에 기댄다.  
한숨을 뱉으며 앞을 다시 쳐다본다.

그때 멀리 보이는 남녀.

처음엔 싸운 듯 하더니 이내 풀린 듯 뽀뽀한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도진.  
그냥 마냥 웃기만 한다.

### S#11

햇빛이 들어와 그림자 지는 창살.  
천천히 눈을 뜬 도진.

### S#12

샤워기의 물을 맞는 상태로  
가만히 서있는 도진.

### S#13

차에 기대어 서있는 도진의 뒷모습.  
도진쪽으로 다가가는 지은.  
인기척을 느낀 도진은 뒤를돌아 지은을 바라본다.  
도진의 품에 안기는 지은  
안으면서 도진은 미소지으면서 작게 말한다.

도진 : 미안.

못들었는지 들었는지 그냥 도진을 향해 웃으며 차에 타는 지은.  
그런 지은을 보며 씩씩한 웃음을 짓고선  
차에 타는 도진.

그리고 멀리 가버리는차.

[END]